

맷 감독 “빨리보다 정확히… 호락호락한 팀 되지말라”

KIA, 오늘·18일 연습경기
20일 시범경기 전 공·수 조율
시즌 관건은 수비…세밀함 강조
마운드, 더블 스쿼드 작전 시험대
선발·볼펜 마지막 퍼즐 맞추기

KIA 타이거즈가 '세밀함'으로 방패를 강화한다. KBO는 오는 20일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시범경기에 앞서 KIA는 두 차례 연습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하고, 18일 수원으로 가서 KT와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른다. 윌리엄스 감독은 두 경기를 통해 세밀하게 수비를 강화할 생각이다. KIA의 올 시즌 관건은 '수비'다.

타커의 1루 이동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린 타선은 부상 선수들까지 돌아오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전망이 밝다. 최형우도 잔류했다. 하지만 마운드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있다.

지난해에 이어 4·5선발을 고민 중이고, 확실한 선발 양현종까지 빠지면서 세 자리를 채워야 한다. 멩덴도 18일 첫 실전에 나서는 만큼 선발은 사실상 처음부터 새로 그리고 있다. 트레이드와 부상이 겹치면서 흔들렸던 볼펜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

선발조를 동시에 가동하는 '더블 스쿼드' 전략으로 답을 찾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의 마운드의 세밀한 전략은 남은 두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16일 경기는 10이닝으로 진행된다. 브룩스와 김현수가 각각 나눠서 1군과 퓨처스 선수단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며 "선발 투수들이 이닝 늘러가면서 시즌 준비하는 게 목표다. 볼펜 투수들도 매치업 별로 맞춰가면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범경기에서도 세밀한 운영은 계속된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조를 붙여서 캠프를 진행했는데 시범경기 들어가면 나눠서 퓨처스팀에서 선발로 나서는 인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선수가 준비될 수 있는 상태에 같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 전략에 따라 임기영과 함께 한 조로 묶여 등판했던 '루키' 이의리도 다음 등판은 퓨처스 연습경기를 통해 소화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당면하다. 동시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직접 점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서재은 코치에게 미안하다. 서 코치한테 있어야 할 선수들을 뺏아와서 훈련하고 있다"고 웃었다.

이어 "선발과 볼펜에 물음표가 남았는데 지금 선발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볼펜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도 많고 잠도 부족하지만 재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마운드 전략을 짜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에게는 수비 상황에서 세밀함을 강조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들이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윌리엄스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날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눈에 띄는 수비 실수가 있었다.

1-0으로 앞선 5회초 1사 1·2루 수비에서 임중찬의 안타성 타구를 경건주 최정민이 슬라이딩 캐치로 낚아챘다. 이어 공을 받은 유격수 박찬호가 1루로 송구했지만 1루가 텅 비어있던 상황. 공이 빠진 사이 2루에 있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정민이 공을 잡았을 때 박찬호가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그 상황에서는 1루수가 누구였는지 두 번째 컷 오프플레이 되는 게 맞다. 투수는 홈과 3루 사이에서 공이 어디에 올지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며 "박찬호가 타이밍 잘하면 1루에서 주자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1루수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생각하지 못했다. 플레이 이후에 바로 박찬호와 이야기했는데 본인도 뒤지는 순간 아차 싶었다고 했다. 게임을 할 때는 필드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가끔 나오는 실수

도 돌아서 송구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웃음). 1루에 아무도 없었던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실수'였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날 윌리엄스 감독은 꼼꼼하게 수비훈련을 지켜보면서 "빨리 보다는 정확히"를 강조했다.

"상대가 공짜로 얻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하는 윌리엄스 감독. 그의 바람대로 KIA가 세밀함으로 부족한 수비를 채우고 5강 싸움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해영 “마무리 후보? 일단 엔트리 드는 게 목표”

지난해 KIA 마운드 셋별…광주일고 후배 이의리와 기대주 주목

"일단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시즌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셋별'로 등극한 정해영은 올 시즌에도 팀을 대표하는 볼펜투수로 꼽힌다. 윌리엄스 감독이 내심 마무리 후보로도 눈여겨보고 있지만 정해영은 조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정해영은 "많이 부족하네 감독님께서 중요한 선수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하다. 아직 보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고 잘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엔트리에 들어갈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군에서 시작했다. 올해는 꼭 개막 엔트리에 들고 싶다"고 밝혔다.

겸손한 말과는 달리 더 높은 위치에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정해영은 두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2021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도 시작했다.

그는 "연습경기에 들어가니까 볼펜피칭, 라이브 때와 다르다. 긴장감부터 다르다. 작년에는 시험하면 무조건 안 맞으려고 했었다. 지금은 선두타자부터 힘으로 볼으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안타는 맞았지만 잘 된 것 같다. 아웃카운트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대의 견제는 심해졌지만 반대로 여유도 생

겼다.

정해영은 "지난해 후반부터 상대가 나를 알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어차피 시즌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니까 초반에는 똑같이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유가 생겼다. 주자 나가면 템포도 빠르고, 홈딩도 못 하고 그랬다.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여유는 있다. 타자와 타이밍 싸움을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피드에 대한 부담감은 덜었다. 지난 시즌처럼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커브로 타이밍을 조절할 생각이다.

정해영은 "직구 스피드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1km정도 더 나왔다. 슬라이더가 아직 작년만큼 안 나오는데 게임하다 보면 감이 올라올 것이다"며 "커브를 지난 경기에 하나 던졌는데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범경기에서도 한 번씩 구사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광주일고 시절 함께 마운드를 책임졌던 1년 후배 이의리와 함께 시즌을 준비하는 게 정해영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된다.

정해영은 "의리가 함께 하니 정말 좋다. 서로 도와주고 이야기도 많이 한다. 초등학교 때부



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 신기하다"며 "마운드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 티가 많이 났는데 괴물이었다. 나도 더 발전해야 한다"고 웃었다.

개막 전까지 정해영은 '코너워크'에 신경 쓰면서 완벽히 시즌 준비를 끝낼 생각이다.

정해영은 "실질 안 하고 최대한 볼넷을 줄이면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는 게 목표다. 코너워크를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아직 100%는 안 되지만 3개 중에 한 개는 잘 되는 것 같다. 점점 좋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직무대행 체제로

부회장 중 한 명 지명…5월 중순 보궐선거

광주시체육회가 16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시체육회는 사의를 표명한 김창준 시체육회장이 이날 공식 사직서를 제출하면 직무대행 체제로 체육회를 운영,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김 회장은 체육회 규약에 따라 시체육회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인준을 거쳐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한다.

체육회 규정상 '회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5월 중순께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는 10일 이내 출마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직무정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육

회장 입지자들의 윤곽은 다음주 중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회장 선거는 민선 초대 회장 선출방식과 같은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초대 회장 선출당시 선거인단은 모두 310명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15일 치러진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회장은 당선 이후 지역체육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전국 시·도체육회 법인화 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민체육법 개정에 앞장섰다. 시체육회 컨디셔닝센터 개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흥민, 부상 아웃

허벅지 근육 부상 전반 교체

토트넘, 아스널에 1-2 역전패

손흥민(29)이 부상으로 이른 시간 그라운드를 떠난 가운데 소속팀 토트넘도 '복린던 데뷔'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손흥민은 15일 열린 아스널과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으나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전반 19분 에리크 라멜라와 교체됐다.

전반 17분 한 차례 스포프린트를 한 뒤 왼쪽 허벅지 뒤쪽을 붙잡고 주저앉은 손흥민은 통증을 호소하며 더는 뛰지 못했다.

손흥민을 잃은 토트넘은 전반 라멜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채 '복린던 라이벌' 아스널에 두 골을 내리 내주며 1-2로 패했다.

최근 EPL 3연승, 공식전 5연승을 달리다 멈춰선 토트넘은 7위(승점 45)를 유지했으나, 상위권 팀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선제골은 토트넘에서 나왔다. 손흥민의 부상으로 투입된 라멜라가 전반 33분 영리하게 득점을 뽑아냈다.

페널티 지역에서 루카스 모라가 짧게 내준 패스를 라멜라가 왼발 라보나킴으로 연결했고, 상대 수

비수의 다리 사이를 통과한 공이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9분에는 토트넘 다빈슨 산체스의 반칙으로 아스널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알렉산드르 라카제트가 침착하게 역전 결승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